

제3회 구민토론회 (16.5.25) 현장 설문 결과

■ 질문: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자유의견 및 성동구 보육지원에 대한 건의

■ 답변: 32명 (어린이집 원장 10명, 보육교사 6명, 영유아 부모 16명)

보육정책 분야

- 맞춤형 복지가 국가정책으로 피할 수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현장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람
- 보육료 현실화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
- 유아→초등→중등→고등 과정의 일관성 있는 교육 지침이 진행되었으면 함

어린이집 운영 관련

-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두고 실효성에 대해 말하고 있으나,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cctv 설치하는 어린이 보육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함
- 보육 지원에 있어서 미지원시설과 지원시설 교사와의 처우를 동등히 했으면 함
- 보육교사의 서류작성 등 불필요한 업무량을 줄여 아이에게 좀 더 집중해 주었으면 함
- 긴급 보육바우처 지원시 5분, 10분 늦는 것도 1시간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함
- 경력교사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경력교사가 바로 설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.
- 국공립, 사립 모두 균등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해주었으면 함
- 유아의 경우 유치원과 비교가 되고 있어 어린이집 유아교육에 활성화 된 교육이 필요
- cctv 화질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.

성동구의 보육 지원에 대한 기타 건의 사항

- 보육시설의 확충시 반드시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전환여부를 조사한 후 시행바람
- 신규 어린이집 설립시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음
- 정책의 그늘에도 신경써 주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
- 구에서 시행하는 모니터링이 너무 많아 보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
- 구에서 실시하는 시설이나 행사에 대해 모르는 학부모가 많음, 홍보를 늘려주기 바람
- 구립어린이집의 특별활동 교육비가 5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움,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무료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음